

한국농어촌공사 의성·군위지사, 재해상황 대비 '저수지 비상대처 훈련' 실시

정재우 jjw5802@ekn.kr

최종 기사입력 2023-05-24 18:54:25



▲한국농어촌공사 의성·군위지사는 재해상황 대비 '저수지 비상대처 훈련'을 실시했다.(제공-한국농어촌공사 의성·군위지사)

한국농어촌공사 의성·군위지사는 22일 지자체, 의성경찰서, 의성소방서, 긴급동원업체 및 지역 주민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조성저수지 외 4개소에 대해 '재해대비 저수지 비상대처 훈련'을 현장 및 도상 훈련으로 실시했다.

이번 비상대처 훈련은 위기대응 요령을 숙지해 상황발생시 대처방법, 상황전파, 응급복구, 지역 주민 대피를 실전처럼 실시하는 등 자연재난에 대한 실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.

이동환 의성·군위지사장은 "예기치 못한 재난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비상대처훈련의 목적이며, 평시에도 정기적인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에 힘쓰겠다"며, "또한 훈련에 참여해주신 유관기관에 감사를 드리며, 앞으로도 농촌의 인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협력을 부탁 드린다"는 뜻을 전했다. 군위·의성=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@ekn.kr

정재우 (jjw5802@ekn.kr)

< 저작권자 © 에너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/ 대한민국 경제의 힘, 에너지경 >

프린트

취소